

말기신부전 환자에서 악성종양의 발생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김진경 · 이영기 · 김은정 · 김수진 · 서장원 · 윤종우 · 구자룡 · 김형직 · 노정우

Malignancy in Patients on Dialysis for ESRD

Jin Kyung Kim, Young Ki Lee, Eun Jung Kim, Soo Jin Kim
Jang Won Seo, Jong Woo Yoon, Ja Ryong Koo, Hyung Jik Kim, Jung Woo Noh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Hallym University

목 적 : 악성종양은 말기신부전 환자의 사망 원인 가운데 네 번째로 많은 원인으로, 말기신부전 환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악성종양 발생의 위험이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었다. 저자들은 말기신부전으로 투석을 받고 있는 환자에서 악성종양의 발생 양상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 법 : 1997년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한림대학교 4개 병원에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시행 받은 말기신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악성종양의 발생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투석 시작 전에 악성종양의 병력이 있었던 경우, 신부전의 원인이 악성종양과 관계된 경우, 신이식을 받았던 환자, 신질환의 치료 목적으로 면역억제제를 투여 받은 환자는 제외하였다.

결 과 : 대상 환자 3,426명 중에 56명 (57예)에서 악성종양이 발생하여 악성종양의 발생빈도는 1.62%였다. 악성종양 발생 환자의 평균 연령은 56.5세 (23-79)였고, 남자 38명, 여자였고 18명이었다. 연령 분포는 35세 미만이 6명, 35-64세 30명, 65세 이상 20명이었다. 투석 방법은 혈액투석 51명, 복막투석 3명, 복막투석에서 혈액투석 전환이 2명이었다. 22명 (39.3%)이 투석 첫해에 악성종양을 진단 받았고, 18명 (32.1%)이 투석 시작 1-5년 내에 악성종양을 진단받았다. 악성종양 진단 전 평균 투석 기간은 46개월이었다. 악성종양이 발생한 환자와 모든 투석환자에서의 말기 신부전의 원인 질환에는 차이가 없었다. 투석 환자에서 위암 (18예, 31.6%)과 간암 (13예, 22.8%), 비뇨기계 암 (6예, 10.5%)은 일반 인구에 비해 높은 발병율을 보였다. 그 외에 대장항문 암 (6예, 10.5%), 폐암 (6예, 10.5%), 유방암 (3예, 5.3%) 등의 순으로 발생하였다.

결 론 : 투석을 받는 말기신부전 환자에서 악성종양의 발생이 일반 인구에 비교해 크게 높지 않았으나, 소화기계와 비뇨기계의 암의 발병율은 일반 인구보다 높았다. 소화기계와 비뇨기계의 암에 대한 선별 검사가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